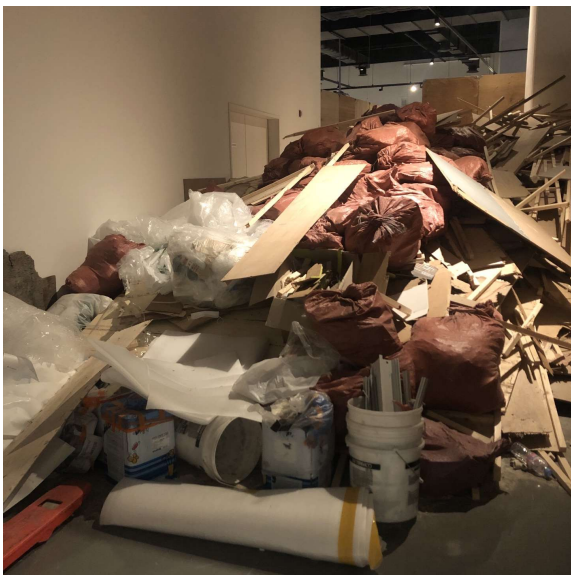


## 덧없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미술 실천

전민지

어렵פות이 떠올려 보아도 그것은 보통 고난이다. 오래된 습관을 고치기, 굳어진 루틴을 바꾸기, 익숙해진 것을 피부로부터 뜯어내기. ‘전시하기’라는 행위에 깊숙하게 내재된 특성상, 미술계가 한 몸처럼 여겨 온 전시 전후의 ‘쓰레기’는 그 습관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다. 백지상태의 특정 공간에서 시작되어 백지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회적 설치 및 해체는 그간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고찰이 필요한 영역의 바깥에 위치한 것으로서, 이는 윤리적 판단 범주로부터 쉬이 -심지어는 은밀하게- 벗어나기도 했다. 전시가 막을 내린 뒤 공간을 가득히 채웠던 선반, 좌대, 의자는 쓸모를 잃게 되었고, 재활용되지 않는 물품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결정 아래 폐기 ‘당했다’. 환경과 생태 문제를 일찍이 포착하며 인식 제고의 방향성에 관해 앞다투어 논의하던 전시의 이면에는 이러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여전히고도 영원하게 검실대면서.



이미지 1, 2.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설치 전경. (사진: 필자)

고착화된 영원성에 틈을 내려는 논의는 이미 촉발되었다. 무에서 유로, 재차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는 내용은 더 이상 단순명료하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면죄부가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그리고 그 무엇도 끝없이 소비되는 재료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현대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5.4.-9.22, 이하 ‘미술과 환경’)은 직관적이고도 지극히 선언적이었다. 전시는 이전 세대가 평범히 누려왔던 것들이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없다는 최근의 의제를 온전하게 흡수한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1947~)가 근작 『나는 어디에 있는가?(Où suis-je?)』(2021)에서 밝혔듯이 인간은 격리 이전과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지구를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는 역사에 탑승한 《미술과 환경》은 미술관과 전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일련의

전술로 제안한다. 그와 동시에 ‘전시 쓰레기’가 어디로 갔는지 묻던 이들, 그리고 묻지 않던 이들을 초대한다.

전시는 미술 및 관련 이벤트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는 단순한 목표를 일차적으로 표방하면서도, 미술관이라는 기관 자체에서 지속 가능성을 꾀하는 것이 가능할지 자문한다.<sup>1)</sup> 이로써 죄책감을 잃은 공간의 문제를 짚어내는 단계를 넘어, 현실적 해결 방안과 실천 가능한 전술을 제안하는 단계로 행한다. 그 예시로, 재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에 석고를 입히지 않은 채 전시장 가벽을 대체한다. 또한 과거의 교착 상태에 거대한 철퇴를 내리듯 이전 전시에서의 폐기물을 ‘설치’하고 이를 투명히 드러내는 데에 전시장 일부를 할애한다. 층고를 높이 매우며 전시된 쓰레기는 전시에 휘방을 놓는 대신 파멸과 파괴의 상징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고스란히 강화한다. 이것이 자취를 결코 감출 수 없는 시체라는 데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어딘가에서 실행 전술을 순차적으로 재생하고 있던 모니터가 “미술관은 이제 관습과 결별한다”고 선언했던 것은 그간의 퇴보를 인정하는 것이자 미래의 퇴보를 최대한 거부하려는 태도의 축약이었다. 과연 이 결별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놀랄 것도 없이 이 전시는 누군가에게는 환영받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소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sup>2)</sup>이었다.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손으로 직접 작성한 이면지 위 캡션, 해외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발자국 절감을 위해 설계도를 기반으로 재제작한 작업, 관람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공유한 영상 작품 등 표면에 드러나는 전술들은 그 의도를 간취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의문점 또한 순차적으로 출현한다. 예술을 행하는 실질적 사안들과 불화한다는 딜레마, 기존의 행정-제도-기관 삼위일체를 배반해야 한다는 벽, (자본을 앞세운 기업의 ‘그린워싱’<sup>3)</sup>과 녹색 권력이 떠오르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술과 환경》 전시 작품 중 장종완의 <그린 베레 - 친환경 미술 탐험대>(2021)에서도 작업 지속과 친환경 간 딜레마에 관해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물감과 친환경 수성 물감을 비교해보며 기능과 윤리 사이 최적의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 미술-행위자의 입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미숙하고 불명확한 고민으로부터 오는 딜레마라기보다 설익은 시점의 문제로 보인다. 이제는 공고해진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1925~1986)의 말처럼 일상에서의 실천은 전술적이고, 수많은 작동 방식을 기초로 한다. 일상에서 작은 구멍을 하나씩 뚫지 않으면 안착의 가능성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낭설만이 공기처럼 떠다닐 테다. 차라리 딜레마로써 그 의구심이 현실을 횡단하도록 해야 한다. 장종완의 작업에 덧붙여, 영국 기반 미술 잡지 엘리펀트 매거진(Elephant Magazine)의 자회사인 ‘지속 가능한’ 미술 재료 판매의 일환으로 최근 런칭한 아크릴 물감 세트를 떠올려 보자.<sup>4)</sup> 재료 자체를 ‘친환경화’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알루미늄 포장재와 튜브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처럼 단일한 일상적 전술은 잠정 시스템이 되면서 더욱 두터워질 채비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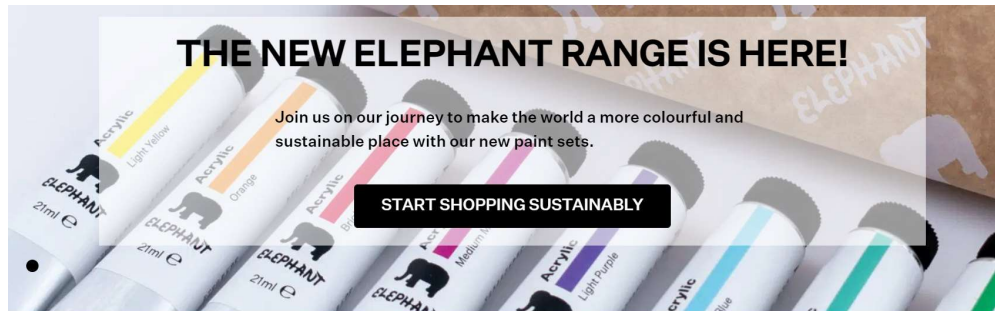
1) 부산현대미술관은 지난 9월 종료된 전시 이후에도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와의 협업으로 학술 프로그램 <Anthropocene 부재의 컨퍼런스>(2021.12.2.-12.16, 부산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를 운영한 바 있다.

2)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전시 리플렛.

3)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상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https://www.gri.re.kr/gri-issue-brief/?pageid=7&uid=22869&mod=document>

4) <https://elephantkiosk.art/elephant-brand/>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을 폐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우리는 이 대안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sup>5)</sup>



### WHAT WE'VE DONE



**Aluminium tubes instead of plastic for easier recycling**



**Halved the amount of packaging that would typically be used**



**Ensured all packaging is FSC-certified and fully recyclable**



**Created a (free) return scheme for responsible disposal**

이미지 3. 엘리펀트 키오스크(Elephant Kiosk)가 런칭한 ‘지속 가능’ 아크릴 물감 세트 (출처: 엘리펀트 키오스크 홈페이지)


이어서 결부될 수 있는 또 다른 미술 실천은 제로의 예술(강민형, 김화용, 전유진)이 기획한 <비거니즘 전시 매뉴얼><sup>6)</sup>이다. 이는 전시 기획 과정을 구체적으로 돌이켜보며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치는 선택지를 고안해내는 프로젝트로, 2021 아르코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2021.9.17.-12.12, 아르코미술관 외)<sup>7)</sup>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성 프로젝트로도 공개된 바 있다. 현재 홈페이지는 ‘작품 포장’, ‘전시장 조성’, ‘홍보와 디자인’, ‘전시 운영’ 등으로 전시 과정을 세분화한 제로의 예술 내부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위키피디아의 특성에 걸맞게 일반 시민의 민주적 참여 및 자유로운 콘텐츠 수정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는 석고로 된 가벽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전시장 조성 과정에서의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설치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다음 전시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일회용품 선택지를 제외할 수 있다. 전시 운영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사항들, 즉 홍보 및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도 공기름 잉크의 사용이나 효율적 종이 인쇄 방식, 생분해성 포장지 구매를 택하는 방법이 있다.

5) 지속 가능한 미술관 선언,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전시 리플렛. 선언의 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관 측은 해당 글의 일부분을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 글쓰기 기법인 ‘전용(détournement)’을 차용하여 완성하였다.

6) <비거니즘 전시 매뉴얼> 웹사이트 <https://wiki.0makes0.com/wiki/>

7) 페스티벌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전시와 위성 프로젝트를 감상할 수 있다. 본 행사 역시 인간-기술-환경의 유기적 조합을 토대로, 인간과 비인간이 공생하는 미래를 상상하려는 시도였다. <https://nothingmakesitself.art/about>

이러한 미술 실천은 간단하지만 실현 -혹은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나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굴해낸다. 고정된 절댓값을 찾아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목적은 아닐지언정, 이것은 지속하여 실험하겠다는 태도와 직결된다. 앞선 관점이 존립할 때 미술은 빛지지 않는 행위로 전환될 것이므로, 땅과 거북이의 쇠소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가기 전에 모두의 행동이 요구된다. 전시 안팎에서의 실천을 보다 밀접하게 하려는 시도는 서울 기반의 미술 재료 재활용 및 공유 플랫폼 ‘피스(PIECE)’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작업 제작이나 전시 종료 후 남는 재료들의 재활용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한 한걸음”<sup>8)</sup>을 내딛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인스타그램 포스팅과 구글 폼을 활용하여 재료 판매 및 나눔을 중개한다. 이와 같은 플랫폼의 등장은 단순 중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현상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영속적 현장으로 전이되는 지점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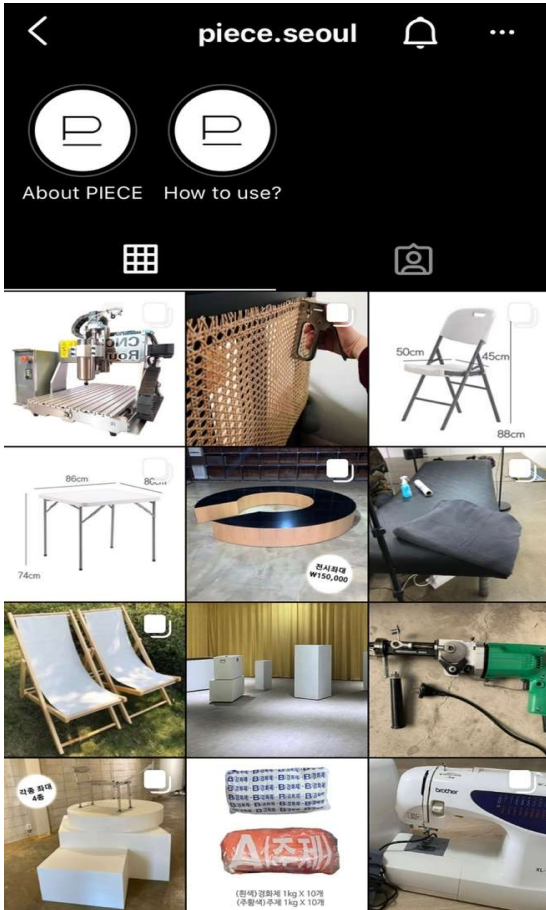


**About PIECE**

**작업을 만든 후, 혹은 전시가 끝난 후에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만들어집니다.**

**PIECE는 작업 제작이나 전시 종료 후 남는 재료들의 재활용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작가, 기획자 등 미술 관련 종사자들이 제작 과정에서 남게 된 다양한 재료와 전시용 가구를 매매하거나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미지 4, 5. 피스 플랫폼 소개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 (출처: 피스 인스타그램)

위 전술이 적용된 2021년의 기관 전시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의 《재난과 치유》(2021.5.22.-8.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의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2021.6.8.-8.8) 등이 있다. 이들은 환경 위기나 재난, 자원 착취와 같은 의제를 폭넓게 다루면서도, 부산현대미술관의 전시와 유사하게 시트지, 페인트, 가벽, 전시대 등을 줄이고 기획 과정에

8) ‘피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iece.seoul/>

서의 폐기물 또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국공립 미술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청년그룹과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포럼<sup>9)</sup>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1 예술의 가치 포럼: 친환경 시대의 문화예술 분야의 대응과 과제><sup>10)</sup>를 지난 11월 공동 주최한 바 있다. 기관의 성격을 막론하고 동일한 기치 아래 끊임없는 행사와 전시가 시도되면서, 진공상태에 있던 과거는 불길을 일으키며 뒤틀리고 있다. 물론 이는 분명 낭보일 것이다. 다만 앞서 살핀 미술 실천의 사례들이 최근 2년간 폭발적으로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기시감은 끝내 오고야 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단순 전술의 아둔한 무도회로 소급되지 않도록, 더는 새롭지 않다는 의미에서 고전적인 노력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 즉 활발히 흘러가는 한시적 ‘트렌드’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동안 가벼이 요청되어 온 사고의 회전으로만 인지되지 않으려면 전술은 그 방식과 범주를 어떻게 확장/적용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천방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민감하고도 날카로운 답변을 달아줄 수 있을 것인가? 정해진 기간에 미술을 담는 전시나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전시를 담는 기관 자체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일대 자가-전환되는 것은 어떻게/언제쯤 주도적인 흐름이 되는가?<sup>11)</sup> 그저 전시장 한가운데 화려한 스펙타클의 일시적 상태로 보일 수도 있다는 위험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무사 탈출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는 모두 환영이나 환상인가?

질문들은 무산된 참신성 대신 정체되지 않는 폐활량에 닿을 내린다. 잔걸음으로 오랜 시간 걸어갈 수 있을 미래에 몸을 기대고서, 그 어떤 잔여물도 없는 지속 가능성에 인간이 내내 전유하던 주도권을 쥐어준다. 언젠가 토마스 허쉬혼(Thomas Hirschhorn, 1957~)이 가까운 미래를 예증하듯 인터뷰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예술은 낭비이고, 쓰레기이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위와 같은 지점은 예술이 그저 ‘덧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 심지어는 예술이 그 고유성에 의해 언제까지나 ‘덧없는 것’일지라도 중국에는 ‘쓸모있는 것’이 되기 위해 수렁에서 건져 올려야 하는 대상이다. 외적으로는 비파괴적인 인간의 시도가 끝내 우리 스스로를 향할 때에는 사뭇 강렬한 내파가 되기를 바라야 한다. 모든 것을 자초한 우리는 모든 것의 서론을 덮어쓰며, 그렇게 종일 요동치는 너울에도 두 발 담그며 살아갈 세계를 축조해야만 한다.

\* 본 원고는 SK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 펠로우십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9) 본 행사는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맺기’, ‘기후위기의 시대, 예술정책을 상상하다’ 두 파트로 진행되었다.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zZ3iMijkBY&t=106s>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PzvPP0nhfvc>

11)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환경 친화적 박물관 및 미술관은 ‘그린 뮤지엄(Green Museum)’이라는 개념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린’이라는 수식어가 소거되더라도 ‘뮤지엄’이 여전히 지속 가능한 개념이 되려면 어떤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가? 그러한 시대는 과연 도래하는가? 그린 뮤지엄의 간략한 예시는 다음을 참조할 것. “Top 3 Most Beautiful Green Museums in the World”, <https://ecobnb.com/blog/2021/04/beautiful-green-museums-world/>; “Top Ten Green Museums”, <https://www.greenvacations.com/blog/top-ten-green-museums/>; “‘미술관에’ 혹은 ‘미술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미술관의 시도들”, <https://www.socialvalue.re.kr/column/info?id=804>

12) “Art is waste! Art is a waste of love, waste of energy, waste of attention, waste of sensitivity, ... Art is waste, definitely. Everything which touches and is touched by art must be waste.” <https://www.euronews.com/green/2019/04/08/art-is-waste-definitely>